

## 동양텔레콤(주)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통신기술업체



- 대표 : 정충모
- 본사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2-7
- TEL : 02-3661-8771
- FAX : 02-3661-5498
- 공장 : 충남 아산시 특산동 312-49
- TEL : 041-545-0533
- FAX : 041-545-5399
- http://www.dyt.co.kr
- 주요생산품목 :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기기, 광중계기기, 이동통신지하광중계기, 위성방송수신기기류, Modem, Sound Card

동양텔레콤주식회사는 30년의 역사를 가진 업체로 Know-How가 매우 풍부한 업체로서 Internet을 활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Infra가 될 HFC 초고속 전송망 장비를 비롯하여 이동통신기기, CATV기기, 위성방송 수신기기, 멀티미디어기기등의 제조와 관련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시스템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정보통신기술업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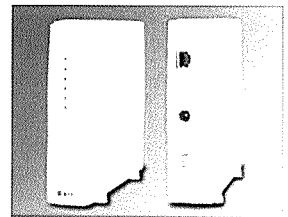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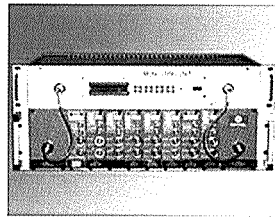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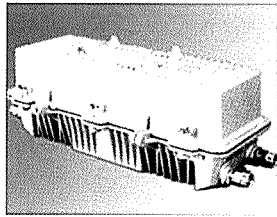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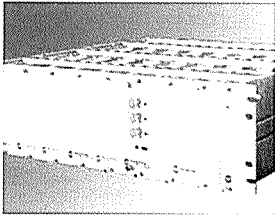
지난 69년 설립(구:동양안테나(주))당시 TV 공사청기기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 RF전송기술개발로 기술회사로서 위상을 굳혀왔으며, 89년 회사 상호를 '동양텔레콤(주)'로 변경하면서 CATV 및 위성통신기기 제조업체로 굳건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92년에 일본 현지법인 설립, 96년에는 해명정보통신과 한빛정보통신 등 멀티미디어 전문업체를 합병·인수하며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시켰으며, 97년 이동통신용 PCS 안테나 개발로 통신기기에 대한 독보적 기술을 입증시킨 동양텔레콤은 PCS 중계기와 HFC망 기기, CATV 시스템 기자재 등의 납품으로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리고, 99년도 부터는 전파음영지역 광중계기, 데이터통신장비 등을 개발하여 사업영역을 계속 넓혀왔다.

또 무선통신 및 광케이블 시설을 구축해주는 정보통신 설비사업을 강화하는 등 종합통신장비업체로의 기업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실제 99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기간 전송망 사업자인 파워콤, 두루넷과 한전KDN 등에 대규모의 OTX, ORX, ONU, TBA 등 HFC 전송망기기를 공급하였으며, 서울과 인천지하철에도 수십억원 규모의 광중계기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초고속망전송기기 하나로통신 Benchmark Test 통과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동양텔레콤은 독자적인 RF설계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 실력에 대해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요즘들어 국산도 외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실증적 인식의 확산에 힘입은 국산 선호도의 상승으로 매출이 크게 늘고있는 추세이다.

정충모 사장은 자사의 강점으로 여타 경쟁사에 비해 R&D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력을 첫손가락에 꼽는다.

동양텔레콤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회사로 평평을 받고있으며, 창업이후 지속적으로 가정용에서부터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통신용 기자재를 개발·생산하여 왔고 이에 따른 경영상, 기술상의 Know-how와 공급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동양텔레콤의 매출은 제품판매와 공사수입 그리고 수출로 이뤄지는데, 특히 제품 매출 및 공사수입은 인터넷 초고속망의 기하급수적인 수요증가에 비례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매출신장을 더욱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확대와 IMT-2000 등의 적극적인 신규사업진출 및 해외시장진출을 통한 글로벌경영만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동양텔레콤은 해당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작년 4월 동 업계 최초로 코스닥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하였으며 7월부터 코스닥 매매를 시작하였다.

동양텔레콤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제품 및 기술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도를 확보하였으며, 미구에 닥칠 국내시장의 포화상태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첨단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은 기 진출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비롯하여 미주, 유럽지역으로 나뉘 현지법인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미국에는 실리콘밸리에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세계

적인 기술정보 수집과 첨단기술 개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자”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충모 사장은 세계 유수의 통신장비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현재 전송망 사업자인 두루넷과 파워콤(한전 자회사) 등에 HFC 전송망 기기를, 이동전화(PCS) 3사의 기지국 통합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KRT(전파관리기지국주식회사)에 광중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수백개에 달하는 종합유선방송국과 유선중계사업자 또한 주요 납품업체이며, 디지털위성방송 수신용 유선안테나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제품이다.

현재 전송중계기의 동작상태를 점검해 잘못된 기기를 자동치유하는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곧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 모토로라와 시스코 등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케이블 모뎀(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을 개발완료하여 정보송신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양텔레콤은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독자적 기술개발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456억여원의 매출을 올렸고, 23억5천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또 올해에는 해외시장 공략에 주력하여 일본 및 중국에 수백만불 규모의 수출실적이 예상되며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 IMT-2000 관련사업, 디지털위성방송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전송망 관련 신제품의 개선, 개발 등 올해

영업목표달성에 총매진을 하고있다. 특히 일본 현지법인(JMAXTEL)의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2005년까지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미주, 유럽 등지의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해외매출을 대폭 늘리고, 아울러 해외생산으로 원가 절감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양텔레콤이 현재까지 추진해온 R&D 현황으로는 위성수신기 관련제품(무궁화위성용 FLAT ANTENNA, LNB 등), 이동통신 관련제품(차량탑재용 Tracking Antenna, PCS용 광증계기), 초고속전송망기기 관련제품(광송신기, 광수신기, 동축전송로기기, 케이블모뎀 등) 등이 있다.

정충모 사장은 '동양텔레콤의 최대강점인 안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관련 산업의 Total Solution 제공업체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고기술력을 인정받는 선도적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